

#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 '사활'

### 도, 5월 5일까지 '청정제주' 사수 관광비상상황실 운영 관광업계와 고강도 방역활동 총력전... 홍보활동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내 입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관광업계 유관기관과 '청정제주 안전관광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제주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관광사업체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마다 관광사업체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는 등 고강도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예정된 황금연휴 기간 동안 약 17만 9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사업체 고강도 방역 강화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한 제주를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3일 관광내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 방역체계 구축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숙박업, 음식점 등 관광사업체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정적 관리로 청정

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협의했다.

또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관광사업체 865개소에 대한 방역 현황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관광사업체 코로나19 방역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더불어 5월 5일까지 관광비상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입도객 증가에 대비한 공항 입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숙박업소 및 관광지 주기적 방역, 종사자 위생 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점검하는 한편, 실내 관광지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만일에 대비해 업종별 대응 매뉴얼

을 24일까지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보건소와의 신고체계 구축 등 입도 관광객 대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공항 및 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안전한 제주관광 즐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밴드 등을 활용해 '청정 안전관광 제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강영돈 도관광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에 도 세심한 방역 조치가 뒷받침돼야 하는 시기"라며 "관광사업체의 방역 철저와 입도객들의 예방수칙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 "해외방문했다면 선별진료소 들르세요"

### 도, 제주공항 워크스루 코로나19 방역 강화

부처님 오신 날에 이어 어린이 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제주를 찾는 입도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공항 '코로나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날 24일부터 '특별입도절차'를 도입해 같은달 30일부터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자가 격리 통보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했지만, 안내 미흡 등으로 2시간 가까이 공항에 있었던 10대 여성 중국인(제주 13번 확진자·4월 14일 판정)을 놓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 전원에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 내용은 능동감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제주

입도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언어는 한·중·영어로 번역돼 전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항공기 내에서만 이뤄졌던 안내 방송(한·중·영)을 공항 도착장에서 진행하며, 발열 검사를 수월하게 시행하도록 바리케이트 대기줄을 새로 설치했다.

이 밖에도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이 4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에 GPS 위치추적을 요청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황금연휴 기간에 약 18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걱정이 많다"며 "코로나19 방역을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제주를 방문해달라"며 ▷다중이용시설서 일정 거리 유지 ▷증상 발현시 즉시 신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을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건물번호판 '자율형'으로 도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제주자치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건물 특성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읍·면·동 및 보건소 43개소에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획일화된 번호판과 달리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 건물미관 향상과 시인성을 높일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고마로와 이종섭로, 칠성로 등 224개소(서귀포시 111개소·서귀포시 113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송은범기자



파도치는 구업 해안 23일 제주시 애월읍 구업 돌연전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 130억대 마약 밀반입 시도 외국인 징역 6년

14만명 동시 투약 분량 기소됐다.

A씨는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제주공항에서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입수된 필로폰은 시가 130억원 상당으로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누워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 중산간 등 폐기물 무단투기 골머리

### 환경훼손·미관저해에 제주시 매년 수억원 투입 지난해만 1125t 규모 적발... 고 시장 "강력 처벌"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산간 등지에서 폐기물 무단투기나 방치폐기물 사례가 이어지면서 행정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훼손은 물론 미관저해와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1000t 안팎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이

를 수거하는데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도별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 872t에서 2018년에는 718t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1125t으로 크게 급증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도 2017년 3억9000만원, 2018년 2억3300만원, 2019년에는 2억7900만원 등이다. 올해도 2억5500

만원을 투입 방치폐기물 수거에 나선 계획이다. 지난 4년간 10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한지인 경우 인적이 드문 곳에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해 투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방치 폐기물 대부분이 폐가구나 폐가전 등 생활폐기물들로 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강력한 단속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 시민들의 청정 환경보호 의

지 고취 등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21일 해안동 중산간 지역 음식점류 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한 현장(본보 4월 20일자 4면 보도)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진행과 엄격한 처벌을 지시했다.

고 시장은 또 "최근들어 인적이 드문 장소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로 예찰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과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통해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yhleee@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페르카**의 효과

- ▶ 잡초의 경감
-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 높은 저장성
-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 강력한 라임효과
-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요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약없이 감자·당근·양파재배 성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와 V패스로 농약없이 재배한 농가가 있어**  
**동네 농업인들 사이 소문이 자자하다고**

**썰파고** · 나노 유향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 양자에너지와 희토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우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킨다

**당근 생산농가** 구좌읍 세승로 김 정 애 (010-5036-1235)

**양파 생산농가** 대정읍 신도리 문 형 원 (010-2698-2476)

**감자 생산농가** 대정읍 상모리 박 성 국 (010-3030-0907)

브로콜리, 양배추, 무우, 마늘 등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기대가 됩니다 (초기 살충제 혼용)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절반으로 줄어 하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